

# tbs 재단법인화 토론회 결과보고

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재단법인화 후의 tbs를 만들기 위하여  
시민·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

## 토론회 개요

- 일 시 : '19. 2. 21.(목) 14:00~16:30
- 장 소 : 서소문청사 2동 제2대회의실
- 발표주제 : 「tbs 재단법인화의 의의와 과제」
- 토 론 자 : 6명(학계, 전문가, 시민단체, 전국언론노조 등)
- 참 석 : 100여명(학계·전문가, 시의회, 마을미디어 관계자, 직원 등)

## 토론회 주요내용

### ① 발 제 : tbs 재단법인화의 의의와 과제

- tbs의 성장과 한계
  - 市 산하 사업소로서의 인력운용 및 재정의존과 예산운영 제약 등에 따른 제작역량 한계, 이로 인해 신규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이 양성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
- 지역 공영방송 필요성
  - 서울의 특수성에 착안한 시민의 동등한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, 지역 정치와 저널리즘 강화를 위한 지역방송, 서울 거주·방문 외국인의 커뮤니케이션 권리 보장
-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 tbs의 전략
  - 시민과 함께하는 지역 저널리즘 강화, 지역(마을) 공동체 플랫폼으로서의 tbs, 글로벌 대도시에 필요한 방송기반 조성, 시사·교양프로그램의 차별화
- 지역 공영방송 tbs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화 과제 제안
  - 공영방송으로서의 독립성·내적 자율성 확보, 市로부터의 재정 자율성 확보

## ② 지정토론

- 재단화 후에는 포용과 참여를 강조하는 가치들을 중심으로 공영성의 가치 재구성
- tbs의 변화는 다른 지역 매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바, 독립성, 자율성, 재원구조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마을미디어 확산을 위한 균형 있는 전략 수립 필요
- 구성원의 고용안정, 적정 노동조건 보장은 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연결
- 기존의 공영방송, 지상파 방송들이 간과하고 있던 부분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 tbs의 경쟁력이 될 것임
- 여러 가지를 폭넓게 소통하는 시민들의 방송이 되는 의미에서 사명(社名)을 소문자에서 대문자 'TBS'로 바꾸는 것을 제안

## ③ 질의응답 및 제안

- 지역 지상파라는 공적 지위가 현재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 필요
- 언론사 내적 독립보장에 대해서는 향후 노조와 보충협약 형태로 교섭 가능
- 마을미디어와 협업관계에 있어서 수평적 관계설정이 중요
- tbs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와 관련, 다른 나라의 좋은 사례 소개요청
- 시민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tbs 내부 구성원들의 전문 역량을 법인화 설계에 적극 반영 필요
- 구성원의 고용안정 중요성과 실제 방송에 마을미디어 활용 시,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필요
- 노조는 경영에 대한 비판적 지도나 참여, 그리고 외부와 유기적 관계 설정을 잘 고민할 수 있는 주체라는 점에서 향후 역할이 매우 중요

첨 부

토론회 사진

